

새로운 변혁 이겨낼 출판문화의 힘

해방 50주년의 새해를 시작하며

정진숙

(재)출판금고 이사장·「출판저널」 발행인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전에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95년을 시작합니다. 해방 50주년은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출판 50주년을 의미하거나, 또다른 한 세기를 불과 5년 앞두고 벌어지는 급격한 변화의 굴곡을 피부로 절감하게 됩니다.

세계공동체란 말이 사회 구성구석에서 실감나게 회자되고 있듯 출판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올해부터 출판의 '개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WTO체제의 출범은 베른조약 가입의 기정사실화를 의미하고, 시장 개방은 출판유통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예고합니다. 또 멀티미디어시대는 더이상 출판계에서 낯선 용어가 아닐 만큼 친숙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출판은 세계화의 외침이 오히려 공허할 만큼 이미 빗장이 열어쳐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출판인은 그 열린 문으로 어떤 변화의 거대한 해일이 밀려들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변화가 새로운 문화의 질서를 만들어내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95년의 문턱에 선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기대 속에 눈앞에 전개될 미래의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또한 해방 50주년임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쌓아온 우리 출판의 저력이 바로 오늘의 소용돌이치는 변혁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이념의 갈등이 깊었을 때 출판은 더욱 견고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대한 안이한 기대는 금물이며, 과연 오늘의 출판이 반세기 세월 만큼 성숙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판은 문화산업이라 일컬어집니다. 출판대국으로 불릴 만큼 우리의 출판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서 저점 공간이 터질 듯 쏟아지는 그 많은 책들과 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은 가히 출판이 산업으로서의 출판의 위상을 더욱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을 굳이 '문화' 산업이라 부르는 데는 의미의 무게중심이 '산업' 보다는 '문화'에 실려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화'에 얼마나 충실한 출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출판인은 5, 60년대의 그 치열한 문화의식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출판행위가 곧 문화의식의 실천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출판의 역사가 곧 그 나라 문화의 역사임에 혹 부끄러움은 없는지, '산업'화의 외침 속에 출판 본연의 문화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바로 '문화'라는 단서가 있기에 우리는 세계화란 다소 두려운 변화의 물결을 자신감으로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곧 보편적인 세계문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으로 인한 출판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출판인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서울도서전을 국제도서전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도 그렇거니와 출판계의 숙원사업인 출판 문화정보산업단지의 조성도 착착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출판을 진정한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기초작업으로 올 한해 동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판저널」 또한 안팎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몫을 할 것입니다. 「출판저널」의 7년이란 짧지 않은 연륜속에 우리나라 출판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출판저널」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늘 새로운 모습으로 출판문화 발전에 선도적 구실을 다하고자 합니다.

초점	2	95년 출판 예측 개방, 베른협약 가입, 멀티출판 등 변화바람
특집 앙케트	3	세계화의 문 여는 새해 전망과 설계 출판인 35인에게 들어보는 95년 출판계
표지 인터뷰	13	說話의 신비한 세계 표현한 說書集 이야기 그림책 「서울설화」 펴낸 김기혁씨
특집 기획	14	'94 학계의 회고와 전망 국사학(이기동) / 철학(황경식) / 문학(이동하) 정치학(마인섭) / 경제학(전철환) / 사회학(신광영) 법학(안경환) / 문화일반(이중환) / 과학(임경순)
책과 사상	20	전통철학의 파괴자 리처드 로티 '탈철학의 시대' 노래한 대담한 시인
새 기획	21	주제가 있는 책읽기 - ① 카오스의 세계
포럼	22	한국의 도서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출판계 소식	23	독서새물결추진위 '독서대상' 시상
서평	24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 윤평중 김동희 외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 정영일 정구현 외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 김광웅
	26	한국슬라브학회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 조원호 발터 슈미트 「독일 근대사」 - 임지현 박희진 「버지니아 울프 연구」 - 정덕애
	28	김용준 「사람의 과학」 - 신중섭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 최종고
이 책그 사람	30	「동물들의 사랑이야기」 낸 김충원씨 「날씨를 알면...」 펴낸 박대홍씨
	31	「서울의 전래동명」 펴낸 이재곤씨 「육례이야기」 펴낸 권광욱씨
세계의 출판	32	“정치를 떠나니 거기에 삶이 있었다” 연애소설 펴내 화제 뿌린 전 프랑스대통령
청소년 도서	34	출협 선정 '이달의 청소년 도서' 18종
	36	신간안내 / 44 새로운 책 /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표지그림 / 김기혁 (관련기사 13면)

謹賀新年

애독자와 출판인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5년 새해
(재)출판금고 임직원 일동